

살레시오 가족 생활지표 2017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Ángel Fernández Artime 신부

살레시오회 총장



Strenna 2017



살레시오 가족 생활지표 2017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Ángel Fernández Arttime 신부

살레시오회 총장

살레시오 가족 생활지표 2017

발 행 살레시오회

발행일 2017년 1월 1일

발행인 양승국

번 역 서정관

편 집 돈보스코미디어

등록번호 제13-707

등록일자 1996년 7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우) 07434

전화 02)828-3535, 팩스 02)828-3538

홈페이지 www.ibosco.net

이메일 dbm@sdb.kr

비매품

원 제 *Strenna 2017*

Copyright © 2017 by Salesians of Don Bosco, Rome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by Don Bosco Media, Seoul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살레시오 가족 생활지표 2017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2006년 1월 1일, 저의 전임자이신 파스칼 차베스 빌라누에바 당시 총장 신부님은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루카 2,52)라는 제목의 편지로 그해 생활지표를 소개하셨습니다.¹⁾ 그 편지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가정을 매개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창하신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돈 보스코의 어머니이며 발독코 오라토리오 아이들의 진정한 어머니이신 맘마 마르게리타 선종 150주년을 맞아 가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쇄신하자는 초대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저는 우리가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관심의 초점을 가족에게 두고자 하는 이 새로운 생활지표를 전 세계 살레시오 가족들에게 드립니다. 다른 여지 없이 이 주

1. Pascual Chávez Villanueva, 총장서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 (Lk 2,52), ACG 392, 3-46.

제는 가정에 항상 더 크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목적 필요에 부응하려는 교회의 우선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3년에 발표하신 교황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이미 제안하셨던 몇 가지 사목적 측면의 연장으로 두 번의 시노드를 통해 가족에 관해 성찰하였습니다. 2014년의 특별 시노드와 2015년의 정기 시노드가 그것들입니다. 이 시노드들의 결과물로 올해 3월 19일, 교황님께서 서명하신 교황권고 〈사랑의 기쁨〉이 발표되었습니다.²⁾

교회의 상황은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가족인 우리에게 온 세상에서 교육사목적 관심의 우선성을 가족에게 집중하도록 요구한다고 여겨집니다.

매년 그렇듯이, 생활지표는 모든 이들에게 · 각 구성원에게 · 살레시오 가족 단체에게 드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동반의 역할로 구체적인 실천이 이뤄지도록 가족에 대한 우리의 과제와 의무감을 더욱 생생하게 지니도록 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2. 이하 AL.로 표기

1. 생활지표의 주제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각자는 각기 아름다움과 한계를 지닌 **가정의 품 안에서 태어났다**는 경험에 대한 인식을 지녔음을 처음부터 언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 가족의 품 안에서 태어났고 어느 한 가족에 속한다는 사실에 의해 특징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모든 여건이 생명과 사랑의 학교가 되어야 하는 그 공간 말입니다. 가족이 생명과 사랑에 관련된 기술을 익히는 구체적인 인간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가족은, 세상의 가족들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 이야기하는 · 소통하는 · 나누는 ·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로, 서로를 지켜주고 각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족 안에서 살면서, 우리 집의 온기를 호흡하면서, 그 품 안에서 양친이나 적어도 어느 한 편의 품 안에서 그것이 지닌 이름과 품위를 받으면서 인격체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첫 애정의 경험을 가족 안에서 했으며 ‘집처럼 느낀다’는 것의 친밀함을 맛보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익혔고, 용서와 허락을 청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이런 체험을 하는 행운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만, 문화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도 대부분 우리는

가족 안에서 이런 현실을 살았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살레시오 가족으로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카리스마적인 가족에 대한 강한 인식을 지닌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가족이며, 그 메시지의 첫 번째 수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31개의 단체가 지닌 다양성(수도회, 재속회, 사도생활회, 신자들의 단체 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회헌, 회칙 또는 정관들은 가족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목활동의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하면서 가족 정신을 담고 있고 우리 존재의 그리고 우리 정체성의 건설적인 요소로서 가족 분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레시오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드러내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인도 아래 보편교회가 크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거나 행동할 수 없는 구체적인 실천의 책임입니다. 청소년의 교육자로서 우리에게 가정의 현실에 대한 살레시안적인 독해를 하고 우리의 겸손한 기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책임입니다.

2. 대화와 만남을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사랑의 기쁨>을 차분하고 침착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초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사랑의 기쁨>을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읽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문헌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요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대화와 만남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교회적인 시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사랑의 기쁨>은 인류를 위한 봉사를 드러내고, 영적·사목적으로 참된 보석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살레시오 가족’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³⁾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 등 최근 교황님들의 가르침과 그 최종보고서를 많이 인용한 2014년 그리고 2015년의 두 차례 주교대위원회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펼친 여러 해 동안의 성찰을 종합하는 동시에 표현과 용어 그리고 전망에 대한 변화를 도입한 것입니다. 순수한 교회법적 입장에다 사목적 차원이 보태진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우리는 혼인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인위적인 신학적 이상,

3. 이 서한에서 편집상의 편이를 위해 문헌의 번호를 일일이 붙이지는 않은 채 교황 권고 AL을 자주 인용할 것이다.

곧 실제 가정의 구체적 상황과 현실적 가능성에 동떨어진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를 일깨워 주지 못하면 이러한 지나친 이상주의는 혼인을 좀 더 바람직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 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현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라고 언명하셨습니다.⁴⁾

서론(1~7항)

교황권고는 가족 안에 있는 사랑의 기쁨과 이런 현실 앞에 놓인 교회의 환희에 대해 말합니다. 종교·정치·문화·경제·법률적 측면들이 섞여 있는 현실, 다양한 양태로 복잡하게 다듬어진 현실을 가족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두 번에 걸친 시노드의 기여를 모은 것입니다.⁵⁾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광활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가족들 삶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보살피도록 불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

4. AL, 36.

5. 첫 번째 특별 시노드는 2014년 10월 5~19일 바티칸에서 “복음화의 여건에서 가족에 관련된 사목적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두 번째 시노드는 2015년 10월 4~25일 역시 바티칸에서 “현대의 교회와 사회 안에서 가족의 성소와 사명”이라는 주제로 있었다. 이 두 시노드에 주교, 사제, 남녀수도자, 결혼한 사람 등이 참가했다.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족들을 관통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들은 자신들이 무조건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는 가족 안에 자신들을 위해 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하느님 말씀의 빛으로 읽는 가족(8~30항)

가족은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자주 등장합니다. 살펴보면 세대에 관해, 사랑의 이야기, 가정의 위기, 가정 폭력 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127)편에⁶⁾ 나오는 목가적인 모습이 성경 전체에 드러나 있는 쓰라린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또 삶과 사랑의 내밀한 친교를 깨뜨리는 고통과 악과 폭력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⁷⁾

인용한 시편 128편 중심에 한 쌍의 남녀가 나눈 모든 사랑의 이

6.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두 그분의 길을 걷는 이 모두! 네 손으로 벌어들인 것을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이 있어라. 네 집 안방에는 아내가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네 밥상 둘레에는 아들들이 올리브 나무 햇순들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네 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7. AL, 19.

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창세 1,27) 사랑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한 쌍은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신비에서 외톨이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느님 내면 상황의 표징입니다.

가족 안에서 고통과 유혈의 체험

시초부터 가족 안에 고통, 악, 폭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카인과 아벨 사이에 형제살해라는 폭력이 자행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이사악, 야곱, 솔로몬, 토비아, 욥의 가족 안에서도 큰 충돌들이 발견됩니다. 병에 걸린 욥은 자기 가족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늘어놓으며 꺼져 듭니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 버렸다
네. **친척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
으며.... 내 입김은 아내에게 메스껍고 내 몸의 자식들에게도
나는 악취를 풍긴다네....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욥 19,13-19)⁸⁾

8. 가족의 유대와 관련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글씨를 굵게 하였음.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복음서들에서도 베드로의 앓는 장모, 라자로의 죽음, 야이로 딸의 죽음, 나인의 과부가 겪는 비극, 갈릴레아 카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의 부족 등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 속에서 가정의 비극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많이 언급합니다. 이는 복음에서 언급되는 가족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합니다. 위기, 고난, 혼란, 나약함, 아픔, 절규 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의 현실을 비추거나 그늘지게 하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하고 유지하는 수단인 일(직업)도 행복뿐 아니라 고통과 고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2장 가족의 현실과 도전(31~57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족이 지닌 복잡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완벽하게 분석하여 소개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오늘날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와 도전을 광범위하게 보여줍니다.

사회적, 구조적으로 그리고 가족의 삶을 깊이 건드리는 생활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특징을 지닌 여건 속에서 교황님은 다음의 상황들을 밝혀 드러내십니다.

* 개인주의, 내적 긴장, 스트레스, 결혼 숫자의 감소, 법적 근거를 지니지 않는 동거

- * 고독, 나르시시즘, 성의 상품화, 몸의 상품화, 별거, 이혼, 인구 감소, 출산 기피 현상
- * 새로운 유형의 가족, 바이오산업의 발달, 성 혁명, (남성 여성의) 영구 피임, 낙태, 종교적 신심업의 약화
- * 궁핍, 품위를 갖춘 주거 공간의 부족, 적절한 가족 정책의 부재, 일자리의 부족
- * 가정폭력, 테러, 약물중독, 경제적 불안정, 가족관계의 파편화, 분노와 증오, 가족의 기능상실, 가족적 유대의 약화
- * 일부다처제, 여성 할례, 언어·육체·성적 폭력, 성추행, 차별, 여성주의, 남성주의, 자녀의 애정결핍, ‘젠더’ 이데올로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가족의 선택은 세상과 교회의 삶을 위해 근본적인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선교적 실천이 항상 요청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이유로 가족은 항상 교회의 선교적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참된 행복의 길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못하면서 타락한 세상에 대한 비난을 더 하는 데에 사목적 힘을 낭비합니다.”⁹⁾

9. AL, 38.

3장 예수님을 향한 시선: 가족 성소(58~88항)

예수님은 당신 시대의 남성과 여성들에게 시선을 두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요구들을 선포하시면서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만나러 가셨고, 진리·인내·자비로 그들의 발걸음을 동반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분께서는 복음을 살고 전파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동반하십니다.

오늘날의 가정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가장 매력적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선포보다 더 탄탄하고 깊이 있고 확실하고 의미 있고 지혜 넘치는 것은 없는”¹⁰⁾ 첫 선포가 늘 새롭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교황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혼인과 가정에 관한 우리의 가르침은 단순히 냉랭하고 생기 없는 규범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꼭 복음에서 연유하는 첫 선포, 부드러움과 사랑의 선포로부터 빛을 받아 영감을 얻고 발전해야 합니다.¹¹⁾

복음에서 예수님은 혼인에 대한 하느님 계획의 완성된 모습을 추정하고 제시하십니다. 선물로서의 혼인이라는 의미를 회복하고, 불가해성을 제시하며 가족과 혼인에 관한 하느님의 본래 계획을 복구하십니다(마태 19,3-8 참조).

10. AL, 58.

11. AL, 59 참조.

교회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 본성과 맺는 결연을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 하며, 상처 입은 가정이 처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식별의 기준을 항상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서 책임의 경중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 채 판단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살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¹²⁾

이 장의 근본적인 것 중 하나는 **생명의 전달자로서 가족**입니다.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이루는 사랑이 출산을 지향하며, 이는 하느님 창조에서 이어지는 생명의 지속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갖도록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부부는 자기 스스로 폐쇄적이 되지 않으려 할 때 인간적이고 그리스도인적으로 의미가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은 생명을 위한 성지이며, 생명이 태어나고 여러 단계에서 보살핌 받으며 보호되는 인간적인 공간입니다.

이 기본적인 차원은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도전들과 동반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발전과 통합적인 교육에 관한 책임자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매우 중요한 의무이고 우선적인 권리입니다. 정부와 국가는 보조적인 방식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부모는 각자의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자녀들에게 제공하려는 교육의 방식과 접근 및 양을 선택할 권리를 지닙니다. 그리고 학교

12. AL, 79 참조.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는 부모를 대체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의 보완적인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가족과 사회 사이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와 가정 간의 연대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부모들이 지닌 교육적 소명을 도우면서 사목적으로 특화된 활동을 통해 협력하도록 어느 때보다 더 요청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족**은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가정교회로서 사람들 사이의 친교라는 교회 경험(친교, 용서, 다정함, 우애, 기도 등)을 성숙시키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4장 혼인의 사랑(89~164항)

이 장에서 교황님은 성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나온 사랑의 송가의 몇몇 표현들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설하면서 그리고 몇몇 근본적인 태도를 강조하면서 혼인과 가족의 사랑에 관한 신학적 전망을 제시하십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¹³⁾

인내란 단순히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막 대하도록 둔다든지 물건처럼 다루도록 허락한다든지 또는 물리적인 공격을 그냥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내는 계약의 하느님께서 지니신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분께서는 자비를 통해 인내를 드러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인내란 연민의 경험이 되어야 하며 다른 이의 나약함 앞에서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 악에 패하지 않기 위해, 선을 행하는 일에서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힘을 말합니다.

교황님께서는 또한 다른 이의 요구 앞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관계요 다른 이의 선익을 추구하는 호의적인 사랑으로서 **봉사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단지 감상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봉사를 행하는 관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불쾌감이 있을 수 없기에 **다른 이에게 좋은 일을 기뻐함**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다른 사람이 지닌 행복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의 성공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으며, 각자를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그 대신 질투는 다른 이의 성공에 대해 슬퍼하고, 그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3. 1코린 13,4-7.

이 중요한 복음적 태도를 밝히는 명단 속에 교만에 관한 언급도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다른 이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명예욕이기 때문에 사랑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 본성에 의해서 다른 이 앞에서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반대로 약자를 조심하고, 배려하며, 이해하고, 보살피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거만한 이들을 참을 수 없다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¹⁴⁾

다른 이들과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사랑스러움**이 요구됩니다. 사랑이 담긴 시선으로 다른 이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스러움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고리를 만들고, 통합을 위한 새로운 연계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튼튼한 직물을 엮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용기를 부추기는 말을 할 능력(신뢰를 심고 힘을 주며 고무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무하셨습니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마태 9,2)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마태 15,28) “일어나라!”(마르 5,41) “평안히 가거라.”(루카 7,50)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그분의 말씀은 용기와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서 예수님의 언어, 특히 그분의 사랑스러운 태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초탈은 사랑의 또 다른 구성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14. AL, 98 참조.

위해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필리 2,4)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악을 기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이의 결점을 이해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 결점의 까닭을 찾고자 노력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방의 경험을 통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포용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기뻐합니다. 그의 존엄성과 업적을 인정하면서 다른 이의 선의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2코린 9,7)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사도 20,35)라 하시니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며 위험에 맞서도록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냅니다. 여기서 여하한 것에 직면하여서도 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문화-저항적 *counter-culture* 역동성을 힘있게 튀어 오르게 합니다. 사랑은 다른 이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악감정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또 한 불편을 만드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하며 결점을 지닌 이와 공존할 줄 알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한계를 덮어주고 그 약점 앞에서 침

목을 지키게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배우자의 좋은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약점에 대해 들춰내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교황님께서 적으셨습니다. 자주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야고 3,8) 하기에 혀를 길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사랑은 신뢰에 의해 움직입니다. 다른 이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치 않으며 우리 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세하게 그를 따라다니는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포기하는 것이며 다른 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은 자유가 없기에 사랑은 자율, 개방, 자유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하고 더 나아질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가능하고 숨겨진 가능성이 싹을 틔울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 혼인성사 혹은 부부의 애덕으로 성화된 사랑은 역동적이며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만큼) 은총의 지지를 받아 계속 성장합니다. 만일 이 사랑이 더 자라질 않는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랑의 성장은 거룩한 은총을 통해 가능하지만, 또한 내적 침묵·마음의 경청·자기절제·대화·기도·(통제와 집착을 극복하는) 감정에 대한 교육·그의 요구와 의도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중요성을 부여할 줄 아는 이의 태도 등으로 도움을 받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성장한다고 확언합니다.

4장을 마치면서 교황님은 하느님 왕국의 독신성과 동정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러 성소에 맞는 다양한 방식과 삶의 양태로 표현되고 적시하십니다. 하느님 왕국의 독신성과 동정성은 사랑의 형태이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1코린 7,7 참조). 다양한 성소 사이에 우월성이나 저급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과 독신은 상호보완적인 두 성소입니다.

5장 사랑의 결실(165~198항)

사랑은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생명을 주며 가족은 생명이 태어나고 받아들여지며 성장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새로운 생명은 하느님의 선물로서, 거저 주시는 당신 사랑의 표지로서 우리에게 옵니다.

교황님은 “인간의 세대를 통해 쇄신되는 창조의 신비에”¹⁵⁾ 참여하는 모든 여성은 이 모성성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기적으로 하느님에게 협력하는 것임을 확인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교리교육 (1980년 3월 12일), 3: *Insegnamenti* III, 1 (1980), 543, AL, 168에서 인용

“당신께서는 제 어머니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시편 139,13)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예레 1,5)

교황님께서는 진정한 아버지요 사목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억하셨습니다.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당신의 기쁨을 보살피십시오. 그 무엇도 모성의 내면에 자리한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아기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두려움, 근심, 새 생명을 세상으로 가져오기 위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기쁨을 꺼져버리게 하는 다른 이의 평판 혹은 문제들을 용인하지 마십시오.”¹⁶⁾

모든 아기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기의 전인적이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양친이 모두 필요합니다. 아기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하느님 사랑의 협력자인 한 엄마와 한 아버지가 있어야 할 그의 자연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상호성의 가치를 가르치고, 자녀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각기 고유한 신원(부성과 모성, 남성과 여성)을 내어놓는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지닌 가치를 가르칩니다.

16. AL, 170.

오늘날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모의 부재 상황을 겪고 있음을 압니다. 어머니 현존의 공백과 부성의 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부성의 위기와 같은 어려운 이 상황 앞에서 “어머니들은 만연한 개인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어머니들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증언합니다.”¹⁷⁾ 의심의 여지 없이 어머니가 없는 사회는 인간적인 사회라 할 수 없겠으며, 어머니들은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항상 다정함·헌신·도덕적 힘을 증언할 줄 압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확대된 출산성**에 관해 말씀합니다. 모성이란 오로지 생물학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입양 등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됩니다. 입양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입양을 통해 사랑의 출산성은 퍼지고 확대됩니다.

6장 몇몇 사목적 전망(199~258항)

이곳에서 규범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깊은 내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치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시대의 도전과 문화·사회·정치·경제 상황에 대해 고발하는 복음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증진하고 사회조직과 협력하는 사목, 문화 및 사회 정치 상황에서 평신도를 부추기고 지원하는 사목이 필요합니다.

17. AL, 174.

가족을 위해 교회에 이바지하는 적합한 가정사목은 성직자, 남녀수도자, 평신도 일꾼 양성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 사목적인 여정에서 젊은이들에게 약혼자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 간의 사랑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루도록 도우면서 **혼인의 가치와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혼자들은 혼인을 하나의 성소로 받아들이고 사랑이 성숙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들의 준비 과정에서 동반 받아야 합니다.

혼인예식의 격을 갖추도록 하는 준비도 필수적이고 **혼인생활 초기의 몇 년을 동반하는 것도** 불가결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책임감 있는 결정이 되어야 할 **부성과 모성의 실현**은 부부의 양심에 대한 양성을 전제로 합니다.

7장 자녀교육의 강화(259~290항)

부모는 자녀들의 도덕적인 성장에 좋게든 나쁘게든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가족의 교육적 사명은 매우 중요하며 복합적입니다. 가족은 자녀들에 대한 지지, 동반, 인도의 우선적인 공간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교육한다는 것은 자유에 관한 성장의 과정을 만들어냄을 의미합니다. 교육한다는 것은 전인적인 성장을 증진하는 것이며 진실하

고 확실한 자립을 가꾸어내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에는 지혜, 확신 그리고 지식을 갖고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지닌 자유를 복돋는 과제를 포함합니다.

자녀들의 **윤리의식을 기르는 것** 또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런 교육은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기거나 넘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감수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화를 통해 항상 긍정적인 방법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자녀에게 모든 순간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랑을 제시하는 선의 추구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착한 습관을 길들이는 데 도움이 되고, 성숙한 자립을 보장할 책임감 있는 자유를 기르는 것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교육적 차원 중 하나는 적절한 순간에 펼쳐지는 **성교육**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기 육체의 유일성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으로,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함을 포함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여성 혹은 남성으로 존재하는 방식은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이뤄지지 않고, 성의 구별은 많은 요소로 이뤄집니다. 성의 구별(남자나 여자로 있는 것)은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끝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는 책임**도 부모에게 있음을 망각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지속해서 신앙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진심으로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하느님을 추구하고 하느님을 갈구하

는 경험을 살며, 아이들이 상징과 몸짓 그리고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자신들의 부모가 행하는 신앙과 기도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8장 취약함을 돌보고 식별하고 통합하기 (291~312항)

교회는 신뢰와 희망을 다시 주면서 가족들을 **동반해야** 합니다. 상처를 입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활동은 자주 ‘야전병원’과 비슷해야 합니다. 오늘날 혼인과 의무의 가치에 관한 인식 부족이 널리 퍼져 있으므로 사목활동을 할 때 점진성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혼인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비롭고 용기를 부추기는 사목, 대화와 식별의 사목이 요구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거의 일반화된 경향에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단순한 동거를 선호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하지만 마치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인내를 가지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동반을 통해 건설적인 방식으로 상황에 맞서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교황님은 신중한 해석과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이

른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식별이라는 중요하고도 예민한 주제와 맞서십니다.

시노드 중에 교부들은 많은 가족이 겪고 있는 취약하거나 불완전한 여러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교회의 발걸음이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상황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단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의를 일으키는 모든 경우를 피하면서 거룩한 교육학을 사용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사제들과 사목활동의 주체들은 모든 이가 동일하지 않은 책임의 정도를 지님을 이해하려 하면서 일반적으로 식별을 동반하고 북돋아야 합니다. 사명의 논리는 사목적 자비의 논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성장의 여러 단계를 자비와 인내로 동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를 통합하고 저마다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과분하고 무조건적이며 무상인 자비의 대상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¹⁸⁾ 어떤 경우든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¹⁹⁾

18. AL, 297.

19. AL, 298.

9장 부부와 가족의 영성(313~325항)

사랑은 각기 소명 받은 삶의 양태에 따라 다양한 색조를 취합니다. 혼인의 영성은 일상적인 삶으로 성화의 여정을 살며 거룩한 사랑과 가족적 친교에 의해 양분을 받는 결합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실 것입니다.”(1요한 4,12)

가족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될 때, 그분께서는 가족이 지닌 문제와 고통을 통해 모든 가족생활을 **하나로 모으시고 빛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파손을 피할 수 있고, 가족 안에서의 기도는 부활 신앙을 표현하고 강화하기 위한 특권적인 수단이 됩니다.

배타적인 사랑의 영성. 혼인으로 부부는 함께 늙어간다는 도전과 열망을 받아들이면서 오직 한 사람에게 온전히 속한다는 의미를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일상을 지내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충실할 것의 다짐을 매일 하느님 앞에서 갱신합니다. 이런 계약으로 모든 부부는 다른 이에게 주님과 가까이하는 상징이고 도구가 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가용성과 위로의 영성. 그리스도인 부부는 은총의 협력자들이며 서로에게 신앙의 증인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는 곳으로

서 가족의 모든 삶을 보살피도록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의 모범이 되십니다. 누군가가 당신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다가설 때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마태 10,21 참조), 그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기쁨을 되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족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사랑의 능력을 차츰 길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은 항상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가족, 나갑시다. 계속 갑시다. 우리에게 제안된 것들이 우리가 더 나가도록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맙시다.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사랑과 친교의 충만을 추구하는 것도 포기하지 맙시다.

3. 모든 집, 생명과 사랑의 학교. 우리의 교육-사목적인 기여

3.1. 강생하신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가족²⁰⁾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이 되시기 위해 한 어머니를 선택하셨습니다.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 한 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가족에 대해 성찰하려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 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가톨릭 교회의 교리교육이 확인하듯이 하느님의 강생에 대한 신앙고백은 당연히 그리스도인 신앙의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구원의 동기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사랑이라면, 강생의 신비는 이를 구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에 우리의 관심을 강하게 잡아끄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 인간 조건을 취하게 하시겠다는 하느님의 결심은 두 가지 매우 의미 있는 사안을 보여줍니다. 동정 마리아의 아들이자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20. Fr. Juan José Bartolomé, SDB 교수가 쓴 글의 제목임, 2016년 1월 살레시오 가족 영성의 날에 발표한 강의로, 이 글이 출간되지는 않았다. 서한의 이 부분은 그 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사실과 한 가족에게서, 즉 사람으로서 나고 자라기 위한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고 우리의 감각을 매우 가까이에서 건드리는 것은 하느님께서 아들이 되어 오실 때 당신 스스로 부모들에게 자신의 탄생을 알리시면서 그들이 동의하여 ‘예’를 하도록 설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기 이전에 은총으로 가득 찹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원하기도 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를 믿기 위한 어떤 표징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녀에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열도 당도 않은 계획을 제안하십니다. 이미 살아온 혼인생활의 결과가 아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입니다(루카 1,35).

마리아와는 다르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대화(루카 1,28)가 아니라 꿈을 통해 드러내십니다(마태 1,18,24). 예정된 그의 혼인에 하느님의 간섭이 충격을 만들어냈고, 그 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마태 1,18,20). 그리고 하느님께서 요셉이 알지도 못하는 새, 허락도 받지 않고 그의 부성을 활용하시며, 이제 이미 이뤄진 일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가족 안에서 그들의 책임과 기능도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의 아기 시절 동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안, 소년 시절 동안, 공생활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놓인 여정을 통해 하느님 가족으로서의 대가를 치뤄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나자렛의 가족을 과거와 현재의 그리고 모든 세기의 가족에게 더 가깝게 해 줍니다.

하느님 구원의 의지, 즉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실은 당신 아들이 우리와 유사하게 되도록 ‘강제’하셨습니다. 한번 사람이 되신 후, “사람이 나고 자라는 생명과 사랑의 요람”²¹⁾인 가족의 품 안에서 사람으로서 성숙하는 것을 익히면서 우리처럼 되기 위해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인간화하는 한 가족이 있었고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가족에게 특별히 거룩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2. 돈 보스코, 아버지 없는 가족 안에서

“내가 두 살도 채 못 되었을 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큰 불행으로 우리를 치셨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한창 나이에 기력이 왕성했고 자식들에게 훌륭한 그리스도교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다가 집에 돌

21. 평신도 그리스도인, 40

아와 생각 없이 서늘한 포도주 저장 창고로 내려갔는데, 그날 저녁 열이 심하게 오르고 위험한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 백약이 무효였다. 며칠 안 되어 아버지는 사경을 헤맸다. 아버지는 모든 성사를 받은 후 어머니에게 하느님을 신뢰하라는 당부를 남긴 채 3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때는 1817년 5월 12일이었다.

그 날들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내 인생 최초의 기억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가 숨을 거둔 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따라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비애에 잠긴 어머니는 거둬 타일렀다. ‘요한아, 어서 이리 온. 엄마랑 나가자.’ ‘아빠가 안 가면 나도 안 갈 테야.’ ‘가연은 것, 이제 너는 아빠가 안 계시단다!’”²²⁾

돈 보스코는 56년이 지나 이렇게 자기 삶의 한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돈 보스코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특히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 매우 절제했었는데, 이 몇 줄에서는 눈물을 흘렸음을 말합니다. 아빠가 움직이지 않고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날 남편이 죽어 이제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한 엄마의 눈물 등 당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아기의 무기력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돈 보스코가 매우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든 아니든 그가 아직 어릴 때 어른들이 그에게 해 준 그 상황에 대한

22. 살레시오 역사 연구소, 살레시오 원전, 돈 보스코와 그의 작품들, LAS, Roma 2014, 1173-1174.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하는 어떤 연구가의 주장이 맞든, 그 순간에 대한 기억입니다.²³⁾ 어떤 경우든 돈 보스코는 당신의 가족이 일반적인 다른 가족들과 같지 않은, 아버지는 없고 대신 분명 특출한 재능을 드러낸 엄마만 있는 가정에서 배우고 자라고 성숙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돈 보스코의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로 모든 것을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5명인 가족들을 부양하는 과부요 어머니인 이 시골 여성에게서 자신에게 매우 이롭게 여겨지는 재혼의 제안을 거절할 때 인간적이고 그리스도인적인 위대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 아이는 정성껏 돌봐 줄 착한 후견인에게 맡겨졌을 것입니다. “후견인은 친구지만, 저는 제 자식들의 어미입니다. 온 세상의 금을 다 준다 해도 저는 결코 아이들을 버리지 못합니다.”²⁴⁾ 돈 보스코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돌봤는지를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종교 교육을 하고 순종심을 길러 주며 나이에 맞는 일들을 마련해 주려고 애썼다.”

이 부분은 어린 요한의 가족들은 아버지가 없는 힘든 상황이지만, 자기 아이들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누

23. “돈 보스코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해 가장 처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회상했다. 그런데 이 기억은 요한이 겨우 두 살 때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기에 신빙성이 많지 않다. 아마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 가족 중 어느 어른이 당시에 대해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기억했을 가능성이 크다.” Giacomo Dacquino, *Psicologia di Don Bosco*, SEI, Torino 1988, 19.

24. 살레시오 역사 연구소, o.c. 1175.

리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교리교사가 어머니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애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여인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물질적인 궁핍 속에서도 아들이 사제로 불린 성소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뒷바라지를 하는 어머니입니다.

돈 보스코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레시오 가족의 위대하고 거룩한 또 하나의 여성,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녀 역시 돈 보스코의 가족과는 다르지만 몇몇 측면에서 가족적 현실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순박한 농부의 가난한 상황은 공통적이었으나, 마리아 마자렐로의 가족과 어린 시절은 매우 다릅니다. 마리아 도메니카는 아버지가 있었고 많은 형제의 첫째였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고향 모르네세를 떠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분명 같은 신앙적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 마자렐로의 인성에 깊은 영향을 준 가정은 다른 모델 속에서 살았습니다.

3.3. 구축하고 복구하도록 돕기 위한 이웃

지금까지 저는 그들 삶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자렛의 주 예수님의 가족, 돈 보스코의 가족 그리고 마리아

마자렐로의 가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 페이지들을 읽으면서 각기 살아오며 지냈던 자기 가족의 경험을 생각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항상 더 복잡한 현실

가족은 오늘날 현실에 모순적이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인류문화의 근본 구조로 계속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²⁵⁾ 인류 자체의 시원으로 올라가고, 유곽과 모형에서 매우 큰 다양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문화 속에 가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도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족 안에서 자라고 가족으로부터 그들 인생의 앞날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근본 구조로서의 가족이 깊은 변화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더욱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변화와 위기의 원인은 복잡적이고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권고 31항부터 57항 사이에 언급하신 상황과 도전에 관한 긴 리스트를 보았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여기에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참혹한 현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무시, 수많은 가족을 나누고 흩어지게 하는 이주민 현상, 직업적 이유로 부모의 장기간 부재 등 유사한 방향으로 나

25. Walter Kasper, *El futuro de la familia desde la perspectiva cristiana*, en George Augustin (ed). *El matrimonio y la familia*. Sal Terrae, Cantabria, 2014, 146.

가는 다른 현상들도 첨가합니다.²⁶⁾

자주 경제적인 상황이 함께 사는 것과 가족의 응집력을 어렵게 합니다. 많은 경우 경제적 여건이 부성과 모성의 전제 조건이 되어 앞에 놓이고, 가족의 가치 · 가족의 계획 · 운택한 삶의 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거대한 힘을 지닌 사회적 작동원리이고 한 형태나 다른 형태로 모든 이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더해 사회 자체 가치의 타락과 ‘일반화’를 인도하고 자주 부부의 불충실을 부추기는 가족 소외의 경향을 지닌 문화의 발전, 개인의 해방이라는 명목으로 이해되는 모성과 부성의 포기, 자녀를 경쟁자 혹은 심지어 경제적 풍요의 방해물로 여기는 풍조의 수용, 항상 더 확산되며 널리 퍼진 가족에 대한 사회적 냉대의 분위기 등 간과할 수 없는 해방 모델의 인간학적 위기가 보태집니다.

끝으로 이른바 가족의 형태에 관한 복잡성에 대해 말해야겠습니다. 새로운 단위의 가족, ‘당연’ 자녀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상황으로써 재구성된 가족,²⁷⁾ 이혼의 증가, 동거를 통한 배우자 교환 등은

26. Cf. Walter Kasper, o.c. 146-147; Reinhard Marx, *No te despreocupes de tus parientes*, en Georges Augustin, o.c. 164-174; Christoph Schönborn, *Cinco recordatorios...* en Georges Augustin, o.c. 216-218; Pascual Chávez,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 (Lk 2,52) ACG n.º 392, Roma 2006, 8-13; David Le Breton-Daniel Marcelli (de), *Dizionario dell'adolescenza e della giovinezza*, LAS Roma, 289-292.

27. David Le Breton-Daniel Marcelli, o.c. 290-291 참조.

가족 형태(외부모, 재구성, 동성부모)의 다양하고 많은 수가 생기게 하는 것 뿐 아니라 혼인·자유 결합·계약결혼 등 다양한 방식에 따른 동거의 형태가 등장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지니기 위해 세상 몇몇 곳에선가 설명하고 있듯이 재구성된 가족이란 부모 중 한쪽, 첫 결합의 자녀, 이 편부모의 짝이 구성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도 다양하고 여러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것도 하나의 예일 따름입니다. 사회학자인 이레네 테리는 1993년 이미 가족 구성의 형태에 관한 25가지의 서로 다른 모형을 제시했습니다.²⁸⁾

오 대륙의 문화적 차이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잡성에 더 많은 요인을 첨가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족 구성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교육자요 사목자이며 복음선포자인 우리의 조건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합니다.

우선적이고 인간적인 응답으로서의 공감

바로 이 고통과 취약한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고유한 가족정신으로 볼 수 있는 공감을 말합니다.

공감이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28. 같은 책, 291 참조.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게 하고, 그들 행위에 대해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더 나은 인식을 지니게 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사는 상황 속에 같은 방식으로 자신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줍니다. 공감은 청소년의 교육자와 복음선포자에게 그들 가족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고, 예민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다리와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각난 가족 혹은 이기주의가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된 깊게 상처를 받은 가족과 대면하여 우리의 공감이 요구됩니다. 특히 자녀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가 새겨진 가족 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듯 자녀들이 ‘불화의 불모’가 되어버리는 가족에게 우리의 공감이 요구됩니다.²⁹⁾

관계를 형성하도록 그리고 상처를 보살피거나 치유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이런 근본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공감 능력이 요구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³⁰⁾ 배려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겸손과 이해, 용서와 자비를 요구하는 실수를 통해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할 때 공감이 요청됩니다. 가족 안에서 모두

29. AL, 245 참조.

30. 마태 12,20; 이사 42,3.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가 용서받는 권리를 지니며 모두는 가족을 구성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용서의 능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한계를 받아들이도록 요청받을 때 공감의 필요합니다. 개인의 한계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받는 사랑으로 풍요로워질 기회, 그리고 무상성이야말로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아는 자기 헌신으로 다른 이를 풍요로워지게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국, 삶을 구축하고 재구축하도록 돕기 위한 공감입니다.

우리 가족 정신의 고유한 태도

살레시오 가족들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장소에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균형 있고 매력적인 가족 정신을 지니며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특성이고 또 계속해야 하는 것이기에, 아이들은 자신들의 가족처럼 우리에게서 이해 · 공감 · 자신들 감정과 친밀감 등의 능력을 발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가족 정신은 돈 보스코에게 근본적인 확신을 줬고, 자기 사업 안에서 개방된 가족적인 분위기의 사랑이 계속 지배하게 하고, 이를 꿈꾸며 설계하고 지탱하며 삶을 바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줬습니다.³¹⁾ 온화하고 받아들이는 인간관계로 항상 두드러진 “진실한 형제애의 방식, 감응하는 사랑, 개방적인 환대, 모든 이와 단순하고 정

31. 제20차 살레시오 특별총회, 649

중한 인간적 만남”³²⁾ 등이 이 가족 정신의 특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과 가족들은 온 세상의 살레시오 집이 삶, 그들의 삶을 보살피 주는 현장임을 체험할 가능성을 지녀야만 합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고, 삶에서 더욱 중요하고 어려움에 부딪친 체험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동반하는 인간적인 분위기(인간성이 풍부한)를 기대할 수 있는 현장 말입니다. 돈 보스코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항상 환영받고 있음을 느껴야만 하고 결코 혼났다가나 단죄되었다고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뭔가가 불가능하거나 허락할 수 없음을 말할 때라도 인격적 존엄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레시오 가족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에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3.4. 가족이라는 생명과 사랑의 학교 안에서

이것이야말로 교황권고 〈사랑의 기쁨〉의 근본적인 열쇠이고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교회가 우리에게 가족을 위해 요청하는 것에 응답해야 할 기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손 치더라도 가족이 **생명과 사랑의 학교**로서 지닌 큰 사명에 대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32. 같은 책, 427; 제24차 총회, 91-93 참조; Pascual Chávez. 총장서한, o.c., 41 참조.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단체들, 기관들과 함께 가족의 곁에 있으며 함께 걸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 즉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³³⁾가 되어야 하는 그 기본적인 성소를 결코 우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가족에게 제공할 우리의 첫 번째 기여는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인류 유산’이라고 인식하도록 돕는 일입니다.³⁴⁾ 적어도 깊게 상처를 받지 않은 가족 안에서는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모두의 선익을 생각하기에 **인간성을 위한 첫 번째이고 공통의 학교**가 되며, 그 안에서 사랑을 향한 소명을 발전시키고 기릅니다. 모든 구성원은 그 자체로서 좋게 받아들여지고, 어린이 · 환자 · 장애인 · 어르신 등 일반적으로 더 약한 이들이 우선으로 배려받습니다.

* 가족의 다른 좋은 특성은 사랑과 생명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집이고 난로**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문화 속에서 ‘집-난로’라는 말은 -집에 있는 느낌- 집의 물리적 공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가치를 함유하고 있기에 정감과 인간적 온기를 담고 있습니다. “난로-집은 보금자리이며 생명의 요람입니다.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지는 곳, 관대한 헌신으로 교육되는 곳, 축제의 기쁨으로 즐

33. GS 48

34. 아파르시다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 문헌, 302. 402

기는 곳, 수고와 눈물의 빵으로 양육되는 곳, 상처 났을 때 치료 받는 곳, 더는 존재하지 않을 때 통곡하는 곳으로서 생명의 특권적인 장소입니다.”³⁵⁾

그렇기에 가족이 없으면 이것을 대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인 복지는 단지 존재하는 공백을 가능한 한 메꾸기 위한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아기에게 있어 가족은 첫 단계에 있는 무한한 자원이며,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해서 그런 것입니다.”³⁶⁾

* – 아빠나 엄마가 홀로 부양하는 어떤 상황에서는 – 자기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의 근본적인 가치를 이해하도록 부모들을 도울 때 가족은 구체적인 삶의 동반을 받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깊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함을 포함합니다. 사랑은 커진 난로를 유지하는 불꽃 같은 것이기에 균형 있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아이들을 돕습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이가 예쁘게 생기거나 이렇고 저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생각하

35. Card. Jorge Mario Bergoglio, *La familia a la luz del documento de Aparecida*. Artículo publicado in Familia e Vita, XIII, n.º 2-3/2008, 64-72, y citado in Papa Francisco y la Familia, LEV-Romana, 2015, Madrid, 51

36. Walter Kasper, *El futuro de la familia desde la perspectiva cristiana, en Goerge Augustin (de), o.c., 169*

거나 내 소원을 채워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입니다.” 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십니다.³⁷⁾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간을 바치고 주의를 기울여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이 짧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질적인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필요에 적절히 부응하는 시간의 양도 필요합니다. 아이들 삶에 대한 작은 관심과 작은 것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 * 안정적인 가족 안에서 부모의 삶은 사랑으로 서로 간에 자신을 주고 자녀들에게 함께 바치는 **헌신을 통해 특징이 드러납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고,³⁸⁾ 조화롭게 통합된 성숙에 이르기 위해 양친이 필요하다고 교황권고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마다 주는 사랑 뿐 아니라 한 생명의 원천, 받아들이는 동지, 가족의 기초로서 부모들 사이의 사랑도 말하고 있습니다.”³⁹⁾

양친이 다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이 늘 가능하지 않음을 잘 압니다. 세상에는 수백만의 아이들이 홀아버지나 홀어머니와 살고 있

37. AL, 170.

38. AL, 172 참조.

39. AL, 172.

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양친의 증거가 자녀에게 가져오는 큰 가치를 제안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족 구성이 어떻든,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자녀들에게 닮아야 할 가치를 제안하는 것이며, 아이들이 장차 삶에서 만나게 될 어려움에 맞서도록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준비시켜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가족은 그 안에서 **대화, 소통 그리고 이해를 가르치고 배울 때** 생명을 준비하는 학교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 이런 가치들이 살아 숨 쉴 때 자녀들은 듣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함께 사는 그리고 집과 사람에게 관련된 것들에 관심 두는 것을 배웁니다. 함께 살고, 알아듣고, 용서를 청하고, 용서할 줄 안다는 것 등은 서로 연결된 태도임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이런 분위기가 자라날 때 가족은 서로가 주의를 기울이는 삶의 공간이 되고 각자와 각자의 길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출발하여 다른 이의 선의에 대해 염려하는 공간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대립하는 것들로 보이지만 이것들이 조화를 이뤘을 때 삶을 준비하는 태도를 살아가도록 배웁니다.

- 대화와 책임
- 자율과 연대
- 자기 돌봄과 모두의 선의 추구
-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건전한 경쟁과 용서

의 능력

— 소통을 위한 준비 자세 그리고 동시에 경청과 존중심이 담긴 침묵의 능력

* 가족 안에서 또한 **한계를 알고 이를 체험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가족의 품 안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구성원들이 이상한 것일 수 있으며, 이것이 자녀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이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부모는 혹은 오로지 하나만 있는 경우 아버지 혹은 어머니인 가장이 언제 어디서 무엇이 발생하든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다 담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마음이 담긴 주의 깊은 시선으로 자녀를 따를 능력과 자녀의 선의를 위해 자유의 한계를 정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사려 깊은 관찰자가 되도록 요청받습니다.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집착은 교육이 아닙니다.”⁴⁰⁾ 이런 이유로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큰 사랑으로 자녀 안에서 자유의 성숙 과정, 준비 과정, 전인적인 성장의 과정, 진정한 자립을 기르는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⁴¹⁾

* (사랑, 신앙, 자유, 정의, 존경, 근면성, 정직 등) 가장 값지고 근본적인 가치는 **가족의 삶 안에 그 뿌리를 두며**, 생활과 정서 속에서 실행되는 습득의 과정은 자녀의 삶을 위해 결정적이며 근본

40. AL, 260, 261

41. AL, 261

적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들과 교육자들은 교육적 감각으로 근본적인 것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항구하게 염려해야 합니다. 이런 전망으로부터 자유, 책임감, 윤리 및 도덕적 성장, 정서 함양, 의지, 공감, 친밀감, 다른 이와 자연을 보호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처럼 사랑과 책임감 있는 성을 향한 교육의 임무가 발생 합니다.⁴²⁾ 이 모든 것들은 다 함께 인격형성을 위한 큰 과제가 되며, 가족은 이를 위한 근본적인 임무가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기관, 특히 우리의 비전과 확신에 따라 교회에 이를 의탁 할 수 있겠습니다.

- * 안락하고 편한 삶을 더 많이 갈망하고 편리와 윤택이 처음이요 마지막 목표가 되며 돈이면 다라는 신념으로 사는 여러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가족 안에서 **절제와 중용**, 낭비가 없는 필수적인 소비, 삶의 단순성이 지닌 가치 등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불필요한 것들의 풍족함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부모는 자녀의 방향과 기준, 감정과 사랑 등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간과해버리게 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고통 역시 우리 삶의 진실 속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의 경험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대피시키면서, 그들을 유약하고 덜 관대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42. AL, 262,262,263,264,268,282,283 참조.

위험에 빠집니다. 사실 사랑의 능력은 고통을 감내하는, 함께 고통을 겪는 능력에 비례합니다.”⁴³⁾

애석하게도 '어쩔 수 없는 빈곤' 속에 살아가며, 필수적인 것조차도 누릴 수 없는 가족들이 매우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화의 배분이 공정하지 않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을 향한 우리의 도움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며, 이런 의식화가 어떤 부모들에게는 아직도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에누리 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 **투신하는 능력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근본적인 것이며** 자녀들의 삶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가족이 자유의 바른 사용과 자신의 말에 충실함을 의미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 때 삶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자유를 구가한다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차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밝히는 일입니다. 책임과 근면성의 가치를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 안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투신할 때 자유로울 수 있음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삶에 관한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치의 전망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큰 선물은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가족은 신앙

43. 베네딕토 16세 교황, 교육의 시급한 과제에 관해 로마 시와 교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2008년 1월 21일)

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도록 그리고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가르치는 장소로서 지속해야 합니다.”⁴⁴⁾ 신앙은 우리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하느님의 도구입니다.”⁴⁵⁾ 당연히 이 “신앙의 전달은 부모가 하느님께 신뢰를 두며 그분을 찾고 그분을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당신 업적을 기리고 당신 위업을 전하리다.’(시편 145,4)”⁴⁶⁾

* 지금까지 소개된 도전과 과제들은 가족을 영웅적인 방식으로 이끄는 부모의 혹은 어머니의 또는 아버지의 ‘예술적인 안내와 동반’에 대해 말해 줍니다. ‘예술적인 안내와 동반’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모든 자녀는 예술 작품을 구현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유일한 과제로 표현됨을 암시합니다. 설령 결코 완벽하게 완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자녀가 삶에서 자신감을 갖고 걸을 수 있게 될 정도라면 완성을 이뤘다고 여겨지는 예술 작품 말입니다.

44. AL, 287

45. 같은 책

46. 같은 책

3.5. 살레시오 사목적 사명의 근본적인 선택: 과정을 동반하고 만듦

지금까지 풍부하게 제시하고 제안하며 말했던 것처럼 매우 현실적이고 아름다운 이 도전 앞에서 살레시오 가족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시작으로 몇 가지 사목적이고 교육적인 제시를 하겠습니다.

- 부모, 부부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동반할 것인가?
- 자녀들, 특히 살레시오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 온 세상의 수많은 남녀청소년들을 어떻게 동반할 것인가?
- 혼인과 한 가족의 형성을 향한 삶의 계획을 성숙시키고 있는 청소년을 우리의 청소년사목, 가정사목 그리고 본당사목으로 어떻게 동반할 것인가?

우리의 사목적 기획, 활동 그리고 결심에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1. 가족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교육-사목적 우선이라고 여기는 도전을 확실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다양한 모임, 관구회의 심지어는 총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살레시오 현장에서 그들의 가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는 남녀청소년과 함께 거의 어떠한 교육사목적인 임무도 생각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인하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가족은 항상 더욱더 가족 사목의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기에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선포와 교리교육의 노력이 요청됩니다.”⁴⁷⁾ 우리 사명의 수령인*으로서 청소년의 우선권이 분명하다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확신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날이 교육적 과제 그리고 복음화의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족으로부터 더욱더 분리될 수 없습니다.

2. 우선적인 선택으로서 **동반**을 다양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획을 통해 수행하려는 확고하고도 일관된 결심의 완성
- 우리의 동반을 받아들이는 부모와 부부에 대한 동반
 - 남녀청소년, 온 세상 살레시오 현장에 있는 청소년, 특히 가족과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동반
 - 모든 청소년의 성소에 대한 동반, 특히 혼인 생활의 계획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청소년에 대한 동반

47. AL, 200.

* 역자 주) 수령인(Destinatari): ‘대상자’라는 기존 번역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느님 사랑의 징표가 되고 청소년, 특히 더 가난한 청소년에게 그 전달자가 된다.”(회헌 2조)의 본질적인 뜻을 반영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 살레시오회원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명을 띠고 청소년에게 파견된 사람들이고, 청소년은, 특히 더 가난한 청소년은 우리에게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달받아야 할 ‘권리’를 지닌 자들이다. 그렇기에 청소년을 우리 활동의 수동적인 ‘대상자’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권리를 지닌 ‘수령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 우리가 만나는 보다 더 다양한 가족 현실에서 삶의 의미로 영성과 신앙의 제안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동반

3. 우리 (예방)교육 시스템에 담긴 모든 것으로 **가족이 애정과 마음을 통해 교육하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인간의 성장과 성숙이 얼마나 더딘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탄생 이후에는 가치의 전달이 포함된 삶의 다른 시작이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발견되는 정서적으로 보호되고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부모와 관계에서 사랑의 고리를 강화하고 풍성하게 합니다.”⁴⁸⁾ 교육자이고 복음선포자인 우리의 과제 중 이 차원에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부모들과 함께 가족 안에서 그리고 우리 현장 안에서 자녀들의 선익을 위해 환대, 경청, 대화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의 방안을 찾기 위한 영구적인 다리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동기 부여, 관계의 친밀성,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때에 대한 존중, 개인적인 소통, 장애물과 거리를 뛰어넘는 애정 등을 제공하지 않는 권위주의를 피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편지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서는 ‘교육적 긴박성’을 언급하시면서 사랑에 기초를 두고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도 사랑에서 나오는

48. Walter Kasper, *El futuro de la familia desde la perspectiva cristiana*, en *Goerge Augustin* (de), o.c., 150

친밀감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자기 부모와 사이에서 하는 또는 적어도 해야 하는 사랑,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체험을 생각합니다. 모든 참된 교육자는 교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해야만 자기 제자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그들도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지닌 이로 변화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잘 압니다.”⁴⁹⁾

돈 보스코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청소년이 사랑받는 것뿐 아니라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에게 이 메시지를 진정 확신에 차서 전달해 주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4. 부모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면서 그들의 교육 사명을 동반하고 지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첫 번째 교육자의 책임을 지겠다는 큰 의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어떻게 실행할 줄은 모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첫째 교육자인 가족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 목적으로 우리의 사업 안에서 가족의 가치가 풍부한 교육적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24차 총회는 살레시오회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⁵⁰⁾

49. 베네딕토 16세 교황, 교육의 시급한 과제에 관해 로마 시와 교구에 한 강의 (2008년 1월 21일)

50. 제24차 총회, 177; Pascual Chávez, o.c. 41

우리는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기획이 어떤 시대에는 성공했으나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부모들의 동기부여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노력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그들과 함께 성찰하도록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어떤 가능한 방식으로 가족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해 아빠 엄마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요망된다 하겠습니까.”⁵¹⁾

5. 사랑을 위한 교육에서 그리고 자녀들의 성교육에서 부모들을 돕는 과제를 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언인 ‘교육의 중대성’이 요청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교육기관들이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라고 쓰셨습니다.⁵²⁾ 세상 살레시오 현장에서 이 책임에 관해서 오히려 추락했음을 알게 해 주는 많은 지표가 있는 듯합니다. 상황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한계가 된 듯합니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우리의 수령인들에게 사랑을 위한 교육의 의무를 느끼며, 우리 집에서 소통과 애정이 풍성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큰 수업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애정-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

51. Walter Kasper, o.c. 175

52. AL, 280

며,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현실과 차원을 이해하도록 해 주는 주의 깊은 교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확신합니다.⁵³⁾

6. 부모와 자녀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느끼는 개인적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살레시오 방식으로 우리의 중재 능력과 우리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설령 부부의 문제로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그들에게 권유하는 순간이 되더라도 교육자요 사목자라는 우리의 자질은 그 자녀들의 선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혼인과 자녀에 관해서 실수할 수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지치지 않고 다른 이와 관계를 추구하도록, 소통을 쇄신하는 길을 가도록,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상호 용서를 베풀도록,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믿도록 가능한 만큼 돕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다른 이와 관계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7. 유일한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로 모든 이에게 열린 집입니다.⁵⁴⁾ 세상 매우 여러 곳에서 가정교회는 박해의 시대와 종교의 자유가 부족한 시대에 신앙을 지탱하고 지켜냈습니다. 부모와 그 자녀들이 모든 종교적인 체험과 멀리 있거나 이를 무시하는 일이 흔히

53. 제23차 총회, 청소년 신앙교육. Roma, 1990, 195-202 참조.

54. Walter Kasper, o.c.,159-160 참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레시오 현장은 그곳에 속한 단체들과 협회, 수도 공동체, 다양한 사도직 활동 단체, 기도 단체, 복음 혹은 어른들 교리교육 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과 함께 부모와 가족 단체를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 공간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청소년들의 혼인 생활 계획에 동반합니다.** 성사로서 거행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혼인이 한물 지나간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델일까요? 2012년 밀라노에서 거행된 제7차 세계 가정의 날 행사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설령 수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항상 생명을 향해 열린 충실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고 행복한 경험입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혼인의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청소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이 혼인의 풍요로움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그들을 돕는 것은 최고로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충만한 결합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존재의 사회적 차원을 높이고 완성하며, 성의 가장 큰 의미를 제공하고, 동시에 자녀들의 선을 증진하며, 그들의 성숙과 교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⁵⁵⁾ 신앙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이상적인 것은 자유로운 헌신을 통한 투신 그리고 혼인에 대한 이상화와는 매우 다른, 드높여지고 열망이 가

55. AL, 205

득 찬 목표를 함께 제안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겠다는 확신에 의해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 청소년들에게 혼인과 가족이 긍정적으로 살아질 때 제공되는 것을 희망함이 지닌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 청소년들이 만일 그것이 하느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성소라면 사랑의 관점에서 그 삶의 계획이 그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침착하게 믿도록 돕습니다.
- 청소년들이 꿈꿨던 모든 희망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실망에 빠질 수 있는 이상화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깨닫도록 돕기 위해 그들 곁에서 걷습니다.
-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인의 혼인에 사랑이 하느님의 지평과 연결된 사실에 의해 구축된 특별한 아름다움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있는 하느님 사랑의 효과적인 표징인 성사의 의미가 됩니다.

9. 부모들과 가족이, 특히 고통의 순간에 **영성적인 차원에서 모든 혼인과 가족의 삶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지속해서 쇄신하고 심화하는 성장인 것처럼 과정과 점진성의 법칙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⁵⁶⁾ 예를 들어 관용과 인

56. Walter Kasper, o.c.,156

내를 더욱더 자주 실천하는 것,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줌, 사랑, 애정, 온유함 그리고 존중의 표현, 서로를 향한 감사와 사랑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가치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기도와 신심업의 실천 역시 이런 체험의 일부가 됩니다. “높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어른 부부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는 인간적이고 영성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구원되고 성공한 인간체험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⁵⁷⁾

10. 가족 현실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복음의 근본적인 가치로서 자비의 우선권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성찰과 식별의 긴 여정**에 참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교육 사목 실천에 영향을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사목활동에 특성을 부여하는 순차성의 기준**에 대해 그리고 이를 우리의 전망, 계획 수립, 교육사목 활동에 받아들일 것이라는 근본적인 확신을 지녀야 합니다.

11. 이 모든 것에 보태, 제가 앞에서 제안한 빛에 따라 지역공동체 차원과 다양한 맥락 속에서 숙고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다른 많은 기획과 기준이 첨가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나

57. 같은 책

열하는 다음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는 청소년들과 가족에게 인간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제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주 그런 것이 필요하며 이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 가능한 한 가족 안에서 사랑의 기쁨이 지닌 의미를 보증하고 증진하도록 이바지합니다.
- 우리들의 집에서 특히 우리의 수령인과 그 가족을 위해 준비된 자세의 표현으로서 환대와 환영을 보증합니다.
- 우리의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혼인자들을 위한 첫 번째 고무자, 인도와 동반자, 교육자와 사도가 될 수 있는 원숙한 혼인 부부들을 중용합니다.
- 가족을 동반하는 우리의 임무가 어린이와 여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하한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 많은 우리 집에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좋은 실천’의 경험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사이에 이것들을 알리고 나눕시다.
- 고통과 고뇌의 상황을 겪는 아빠와 엄마들을 향해 우리가 지닌 공감의 태도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자주 평가합니다.
- 우리의 교육과 복음화 활동은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이 지닌 장점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을 살리면서 우리 교육사목공동체의 사목적 힘을 아직 더 발전시켜 갑시다.

- 온 세상의 살레시오 집이 부모와 가족에게 신앙을 발견하도록, 또는 냉담 중이거나 신앙을 버린 경우 다시 발견하도록 돕는 교회의 얼굴과 모델이 됩시다.

결론적으로, 지치지 말고 발독코의 분위기로 확실하게 돌아갑시다.

우리가 사는 여러 다양한 장소에서 가족들,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쇄신된 관심을 기울이도록 모든 살레시오 가족을 향해 호소합니다. 교황권고에서 제 나름대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면서 나자렛 성가정에 드리는 기도를 바칩니다.

“혼인과 가정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은 이러한 사랑과 온유의 메시지로 힘을 얻고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는 교리 옹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빛으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주셨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 속에 현존하여 살아 계시

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자 하며, 세상의 모든 가족 위에 성령의 불꽃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자 합니다.”⁵⁸⁾

성가정에 드리는 기도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성가정 안에 있는
참사랑의 눈부심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저희를 성가정에 의탁합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저희 가정도
친교의 장소요 기도의 다락방으로,
복음의 참된 학교이며,
작은 가정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가족 안에서 다시는

58. AL, 59; 기울기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강조하기 위한 것임.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폭력, 폐쇄, 분열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입었거나 모멸감에 빠진 모든 이가
바로 위로받고 치유되게 해 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저희 모두가
가족이 지닌 거룩하고 침범할 수 없는 성격과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 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저희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는 한 가족! 모든 가정은 생명과 사랑의 학교입니다.

